

#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세계적 수준의 의료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토론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기술과 제주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연계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외의 국제도시 및 의료인프라 구축 성공사례와 사례연구를 통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했다.

## 사 회

고성규 엘피온 대표이사

## 발표 및 토론

부원균 JDC 의료사업처장

심원희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 실장

탄 마이안 싱가포르 공공보  
건의료기관-대외협력팀장

마르티 라우노넨 前 핀란드  
테크노폴리스 기획자

샤오 민 중국 차이나시스템셀  
바이오그룹 부사장

부원균 JDC 의료사업처장은 제주도가 이미 세계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구 58만 명의 아름다운 섬으로서, 매년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섬으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런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를 중앙정부에서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JDC를 2002년에 설립하여 현재 6대 핵심 프로젝트와 5대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자유도시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의 활동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전체적인 구도는 4+1로 함축된다. (교육/의료/관광/청정산업을 기반으로 첨단지식산업의 육성)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주의 청정자연환경에 맞는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정주여건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이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활동이 필요한 기업들을 제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며,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

1,539,013㎡ 규모의 사업부지에 약7,845억 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의료복합단지로서, 현재 토지매입,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업 인허가 승인 등을 모두 마무리 하고, 작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우-중대지산 컨소시엄’과 중국 부동산전문개발기업인 녹지그룹과의 본격적인 투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의료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다른 프로젝트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하나의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닌 제주 전체가 하나의 테크노폴리스로 거듭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제주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활용할 경우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유관기관 및 잠재투자자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의 글로벌 의료인프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심원희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실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당초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개발 콘셉트와 도입시설, 운영프로그램 구성에서부터 자문 형태로 참여를 해왔었기 때문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공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하고 있고, 특히 해외환자들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마케팅 관점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제도의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제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2시간 비행거리 이내의 거대한 동북아시아 시장을 배경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향후 국제항공 노선이 확대될 경우 국내 인천, 서울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보다는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하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아시아 최고의 헬스케어센터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용이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함에 있어 글로벌 의료인프라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사업미션이 존재하나, 먼저 프로젝트의 특성상 사업성과 수익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 각광받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의료관광산업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가 우선 가능하며,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의료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본원을 중심으로 서울 인근에서부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병원운영 참여

등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강남헬스케어센터의 비약적인 성공과 월드클래스센터 인증 등을 통하여 국내 의료관광산업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임상경험과 연구실적, 국제교육센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경험들과 노력들을 바탕으로 향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을 맺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심원희 실장은 마지막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와 풍부한 인적자원의 개발, 월드클래스의 기반시설(접근성 개선 등), 색다른 문화적 경험과 글로벌 의료네트워크의 확충 및 U-Health 개발, 이 다섯 가지의 핵심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헬스케어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선이며, 이와 더불어 제주 헬스케어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 마이얀 싱가포르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외협력팀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도시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의 구축과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1980년대에 싱가포르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를 중심으로 2개의 의료클러스터(National Healthcare Group/SingHealth)를 구축하였으며, MOH(Medical Officer of Health)산하에 설립된 홀딩스컴퍼니가 클러스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든 의료인프라의 구축은 정부의 비용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경영개념에는 민간기업의 개념을 도입하여 온 것이 큰 특징이라고 강조하였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 4개의 클러스터를 추가하여 총 6개의 클러스터가 지역별로 의료시스템을 구성하고 MOH 홀딩스의 관리 하에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래플즈 병원 및 파크웨이 병원 같은 민간영리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MOH에서도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클러스터 중 하나인 SingHealth의 경우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직원수만 1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연간 내원고객은 70만 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민간 및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Medishield 및 Medifund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재정확충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및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리병원을 도입하여 공공의료와는 별개로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전했다.

탄 마이얀 팀장은 싱가포르의 의료체계를 요약하면 공공과 민간이 단계별로 다른 기능과 다른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상호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의료시스템은 국민복지의 향상에 주목적을 두고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르티 라우노넨 전 핀란드 테크노폴리스 기획자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념과 설계는 도시가 궁극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와,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삶이 얼마만큼 안전하고 풍요로운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도시의 디자인과 건축설계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환경과의 조화와 경쟁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미디어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해서 21세기의 미래형 도심설계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미래형 도시는 상호보완적으로 환경과 공존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들과 최적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도심 속에서의 경제적 활동 2) 풍요롭고 활동적이며 상호 교감을 이루는 생활환경 3)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영속성

마르티 라우노넨 기획자는 미래형 도시들은 자연환경과 상호 유기적으로 적응하는 체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지역적 조건에 따라 일상생활과 근무환경, 공공과 민간서비스, 유동성과 가상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 교육 및 레저 활동들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래형 도시는 스마트 시티와 에코시티 그리고 헬스케어 시티가 복합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과 구조 외에 국제도시에 걸맞은 근무환경 및 공공서비스, 교육과 문화기능, 에너지재활 및 수자원관리, 헬스와 안전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수단, 환경자원관리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핀란드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하여 의료단지와 비슷한 유형의 조직화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왔고, 현재 올루시티 콘틴강가스 지역에 헬스케어타운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하나의 의료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 시티의 복합적인 요소중의 일부로써 전체 도시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샤오민 중국 차이나시스템셀 바이오그룹 부사장은 CCTG는 인간의 삶의 주기에 대한 혁신적 재설계를 위하여 첨단의료기술을 활용한 줄기세포치료법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태의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그리고 보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헬스케어시티의 구현,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에코시티 등의  
계획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



---

**향후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고품질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동아시아 의료관광의  
허브로서 성공가능성 큼**

---

신체세포를 치료, 재생, 복구하는 등의 많은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CCTG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타깃으로 한 국제건강의료서비스센터 설립을 기획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센터를 설립할 매우 최적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완벽한 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온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한국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정책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JDC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프로젝트와 글로벌 의료복합타운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건강의료서비스센터를 JDC 핵심 프로젝트 내에 혹은 가까운 위치에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했다. 이 센터는 중국, 한국 및 다른 여러 국가의 환자를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의료기술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와 JDC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내 모든 프로젝트 및 도시 설계(스마트시티, 에코시티, 헬스시티) 기능과 구조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제주종합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들이 하나의 미션으로 귀결되도록 조정 필요)
- 또한 국제자유도시로서 높은 경쟁력과 생산성,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에코시티와 스마트시티의 핵심요소들도 함께 도입 되어야 함.
- 의료관광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 신공항 건설 등의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글로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제주가 특별자치도인만큼 타지방과는 다른 국제적 수준 이상의 차별화된 의료제도 완화가 필요하며, 특히 구축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또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과는 별개로 민간 기업들의 참여와 유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제도의 차별화와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복합 의료 단지이므로 이를 1단계 의료클러스터로 활용하고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무적 지원이 시급하며 나아가 2,3단계 이상의 의료클러스터를 개발해야 함.

**정리**  
이종익 JDC 의료사업처 차장